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될 때의 상황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나실인의 서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때였습니다(3:1). 그래서 3장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으로 태어난 사무엘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 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 살고 있는 그 때의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무엘 상의 처음 장들은 그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동시에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사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도 이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18절에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고 8장1절에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사사로 삼았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엘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사사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무엘

의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사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타락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장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이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 '업신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나아쯔'라는 단어입니다. 말라기 1장6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멸시하다' '나아쯔'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34절)"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한 날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깨우는 바가 매우 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우리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

은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범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하며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악순환 가운데 빠지게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나락에 빠진 인생의 결말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종말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 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도리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당시에는 편해 보이고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분을 높여드리며 그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제사장(2:36)"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분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아무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분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였다는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 성도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분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분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